

◆ 일기예보 정보취득 어떻게 하시는지?

양봉인 여러분은 대부분은 라디오방송을 통해 일기예보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디오의 경우는 KBS1에서 매시간 57분에 일기예보를 한다. 라디오방송에서 그것을 듣기도 하고 신문과 TV에서 일기예보를 자주 접하기도 한다.

급할 때에는 131 전화를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좀더 상세한 일기예보정보를 알아보려면 PC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이텔에서는 GO WEATHER(한국경제신문 제공), 천리안에서는 GO WIC(기상정보센터 제공) 등에서 일간·주간·순별 자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기예보 이용중 가장 관심 높을 때가 아카시아 유밀기간일 것이다. 비가 올 것인지, 그리고 기온은 얼마나 높거나 낮아

는 정보. 우리가 서로 다 모르는 사소한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도 좋은 정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편집자>

2. 기상생활 자료

◆ 일기예보의 이해

일기예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요즘 일기예보를 들으면 「곳에 따라 한때 비」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이 말은 곧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특히 여름철의 소나기는 비를 내리는 장소가 일정치 않다. 오죽하면 『소원쪽 잔등에 비가 왔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곳에 따라 한때 비」라고 하는 일기예보는 듣는 사람으로서야 답답하지만 실체가 그런 만큼 일기예보로서는 흠잡을 수 없는 표현이긴 하다.

그런데 더러는 일기예보를 내

적인 시(時)를 밝힌다.

「한두차례 비」라는 것은 한때 보다는 좀더 자주 내리는 경우가 되겠고 「가끔 비」라고 하는 것은 예보기간의 1/3 이하의 시간에, 그러니까 새벽 5시에 나온 예보라면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의 시간중 8시간(혹은 그 이내)에 걸쳐 비가 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가끔 비 이거나 흐리고 비」라고 했을 때는 거의 100%비가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이 한 때가 될 지 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때 비」나 「한두차례 비」는 확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곳에 따라 비」라든지 「약간의 비」라고 했을 때는 구태여 우산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구름이 다소 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는 것을 10으로 잡았을 때 4~6할 가량 구름이

농업법인 경영내실 「발등의 불」

강원 301여 법인중 180여곳 부실운영

강원도내에 설립·운영중인 영농조합법인등 농업법인의 3분의1 이상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현재 운영중인 농업법인체 경영주들의 법률·경제적 지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경영내실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원도농촌진흥원이 발표한 올해 도내 시범연구사업 종합평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설립된 농업법인체는 농업회사법인 65개소, 영농조합법인 2백36개소등 모두 3백1개소이나 이중 정상운영되는 곳은 1백80여개소 뿐이라는 것.

더구나 부실운영되고 있는 법인체중 30여개소는 사업비만 투자됐거나 설립등기만 해놓고 있는 등 운영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업인 5명 이상이 정관을 공동으로 작성하는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설립등기만으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등 절차가 간소화한데 따라 일부 농민들이 각종 정책자금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인을 위장설립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농진원은 부실영

농법인체를 예방하고 설립목적 및 출자자산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을 인가주의로 바꾸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해 출자를 시책으로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업법인의 경영내실화를 위해 경영·회계장부기장 지도, 경영주 및 관련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컨설팅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을 통해 등록된 영농조합법인은 2,435개이며 각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 : 1 ▶부산광역시 : 5 ▶대구광역시 : 6 ▶인천광역시 : 5 ▶광주광역시 : 8 ▶경기 : 138 ▶강원 : 232 ▶충북 : 146 ▶충남 : 145 ▶경북 : 303 ▶경남 : 337 ▶전북 : 366 ▶전남 : 728 ▶제주 : 33개소 등이다.

이중에 양봉업관련 영농조합법인은 대충 파악해 본 바로는 ▶강원 영월군 「영월양봉영농조합」 ▶경남 사천군 「사천꿀벌영농조합」 ▶경남 산청군 「지리산벌꿀영농조합」 ▶전남 해남군 「양봉영농조합」 ▶전북 남원시 「산내한봉영농조합」, 「운봉한봉영농조합」 ▶경북 예천군 「예천양봉영농조합」 ▶경북 상주시 「상주축산영농조합」 등이 있다.

▶ 용어 해설

일기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용어에 대한 뜻을 알아야 하겠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일기도를 보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용어를 간추려 보자.

▷ 고기압과 저기압

기압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기준은 일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다시 말해서 주위의 기압에 비해 높은 곳이 고기압이요, 낮은 곳이 저기압이다. 고기압 구역에서는 날씨가 좋고, 저기압 권내에서는 날씨가 나쁘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다음호 계속>

생활인의 기상정보

3

질 것인지 등. 지난 초봄에 경험한 바 있었던 건조주의보도 우리 양봉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풍이 온다거나 할 때는 긴장하여 대비하여야 하고, 비는 몇일 후에 오고 그 다음 비는 또 몇일 후에 온다는 정도의 정보를 미리 알아만 두어도 양봉장 관리 진행상황을 좋게 할 수 있다.

그밖에 건조주의보라든가 지역적 첫서리 내림과 첫얼음 오는 날짜 그리고 마지막 서리 내림과 마지막 얼음이 오는 날짜에 등 이런 정보는 PC통신에서 찾아보면 자세한 기록들이 나온다.

기상 악화상태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접하면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첨단 양봉경영이 아닐까 한다.

『큰비가 올것 같으면 창개구리가 운다』고 한다.

또 어느 바다에 엘리뇨 현상이 있으면 날씨가 덥든가 하

는 사람(예보관)이 자신이 없을 때, 그러니까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안올것 같은 몸살나는 그런 상황일 때 슬그머니 「곳에 따라」라는 표현을 빌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속마음을 모르고 일기예보를 듣는 사람으로서야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 같다 치고 「한때비」라고 하는 것은 대체 비가 얼마나 온다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다.

일기예보를 직접 작성하는 기상청 예보과는 하루에 3번(05시, 11시, 17시)에 걸쳐 일기예보를 내는데 그 종류는 당일예보와 내일, 모레까지의 예보로 돼있다. 따라서 한때 비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3시간 동안(혹은 그 이내의) 한때 비가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만일 그 시기가 분명할 때는 「낮 한때 비」나 「밤 한때 비」라는 식으로 대체

끼는 것을 뜻한다. 「가끔 흐림」은 이보다 더욱 흐려 전체 구름량의 6~8할 가량되는 경우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상청의 단기 예보(24시간~48시간)는 그 적중률이 80% 선이 된다고 스스로 장담한다.

그러면 각종 주의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 요즘 자주 발표되는 호우주의보는 24시간의 강우량이 80mm 이상 될 것이 예상될 때 내려지고 호우경보는 150mm이상일 때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1시간에 30mm이상의 강우가 있을 때도 주의보는 내려진다. 폭풍주의보는 평균 최대풍속이 초속 14~20m의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때와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이 예상될 때 발표되고 경보는 초속 21m 이상 되는 강풍이 불거나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26m 이상될 때 발표되는 것이다.

◆ 일기도 보는법

세밀 불우이웃돕기

아카시아꿀 40병 기탁 인천 장봉환 회원

세밀을 맞이하여 인천시 서구 검암동 산13번지 장봉환 회원은 무의탁노인들의 불우이웃돕기로 써달라고 아카시아꿀 1되들이 40병(약 1백60만원 상당)을 본협 인천지회에 기탁해 왔다는 미담이 전해졌다.

장봉환 회원은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이같은 불우이웃돕기를 한바 있다고 조병만 지회장이 전해왔다.

신개발품 협동전열판 전지파 방지용 부직

봉군은 초봄·늦가을에 외기온이 10℃ 이하시에 동태온도인 35℃로 올려, 육아도중 외기온이 0℃ 이하로 내려갈시 봉군은 육아실패 반복으로 수명단축과 아침 외출봉 증가로 다량 동사하나 약군2매 월동군도 정태온도인 21℃ 별도장치 응용으로 외출·체력소모 없는 완전한 월동과 2매봉군 육아시에도 외기온이 0℃ 이하로 갑자기 내려갈시 동태온도인 35℃ 별도장치등 협동전열판 응용으로 다량 우수한 육아가 진행되며 늦가을 2매약군도 2매이상 다량 육아봉 개광출방으로 월동강군이 유지되며 별도장치로 우수한 대군 분봉, 다량 채밀을 위해서는 전자파 없는 전기응용 4철 사용하여야 됨

※ 별도장치로 협동전열판의 온도는 38℃ 이상 과열되지 않음
전열 내림장치 됨. 별도장치 50군 기준 25만원
전열판 100V용 1매당 6,000원

☎ (02) 664-7207 이 봉 군 협동봉기구개발원

선히타 전열판!!

- 니크롬선 제품이 아닙니다... 면 전체가 특수한 발열물질로 된 반도체 세라믹판입니다.
-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온도를 제어하므로 이불속에 조절기 없이 넣어두어도 안전합니다. ... 따라서 벌통밀 내·외부 어느 곳이나 설치가능하며, 사용이 간편합니다.
- 국내 유일의 양봉용 전열제품입니다... 전열판과 자동온도조절기 모두 형식승인을 갖춘 확실한 제품입니다.

[형식승인번호 : 전 3-7-4613]

- 구입방법 ▶ 전열판 : 1장당 5,000원
- ▶ 자동온도조절기 : 1개당 50,000원(100군에 1개 필요)
- ▶ 우송료 : 전열판 50장까지 3,000원

부여밀봉원

☎ (0463) 836-1212 서울:(02)536-2953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96-1 대표 김수기
예금온라인 : 우체국 310375-0011817